

7월 17~19일 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

- 예상강수량(17~19일): 제주도 100~200mm(많은 곳 중산간 400mm 이상, 산지 500mm 이상)
- 강풍·풍랑, 천둥·번개로 인한 안전사고 유의 및 많은 비로 인한 침수 피해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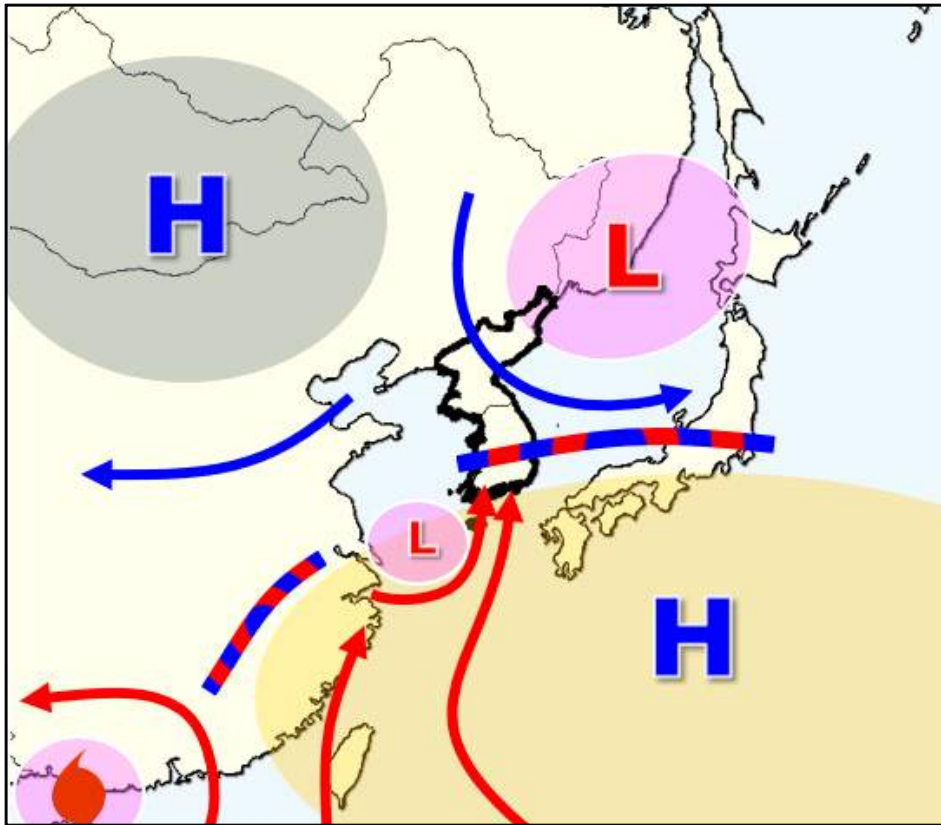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이용섭)은 7월 17일(월) 오전부터 19일(수) 오후 사이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붙임 참조).

제주도에는 19일(수)까지 중산간 400mm 이상, 산지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18일(화)부터 19일(수)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80mm(산지 시간당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으며, 해상에서는 17일(월) 밤부터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점차 그 밖의 해상(제주도북부앞바다 제외)에서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호우·강풍·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용섭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장마철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와 강풍·천둥·번개에 의한 위험기상이 예상되니, 야외활동 자제, 시설물 점검 철저, 침수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해상에도 높은 물결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2023년 7월 17~19일 예상 위험기상 설명자료
2. 과거 유사 사례시 제주도 호우·강풍 피해 보도자료

담당 부서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충기 (064-909-3920)
		담당자	사무관 김길엽 (064-909-3920)



[7월 18일(화)~19일(수) 예상 기압계 모식도]

1 강수전망

- 제주지방기상청은 17일(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18일(화)부터 19일(수) 오후 사이에는 남하하는 정체전선과 제주남서쪽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 (호우) 17일(월)에는 남풍의 지형적 영향을 받는 산지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특히, 정체전선이 남하하고 저기압이 점차 북동진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유입되는 18일(화)부터 19일(수)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mm, 산지에서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강화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분석하였다.

< 예상 강수량(17~19일) >

- 제주도: 100~200mm (많은 곳 중산간 400mm, 산지 500mm 이상)

- 7월 13일부터 현재(7월 17일 12시)까지 제주도에는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100~5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리는 많은 비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 계곡, 하천 상류의 호우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가능성, 야영 자제
- 하천변 산책로 이용 시 고립 가능성,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유의
-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급류에 유의
-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
- 공사장, 비탈면, 옹벽, 축대 붕괴와 산사태 가능성이 높음
-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
- 돌풍과 천둥·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
- 천둥소리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
- 한라산 둘레길, 오름, 울레길 출입 자제

- (가시거리) 한편, 비가 내리는 곳으로는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고, 강한 비가 내리는 곳에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며,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변동성) 이번 강수는 정체전선의 발달정도와 이동경로에 따라, 강수 집중시간과 강수집중구역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겠고, 20일(목) 이후에도 제주도 주변으로 정체전선이 머무르면서 비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최신의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강풍과 풍랑 전망

- (강풍) 18일(화) 새벽부터 밤 사이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전망하였다.
- (풍랑) 17일(월) 오후부터 18일(화) 밤까지 제주도남쪽면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35~60km/h(10~16m/s)로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 밖의 해상(제주도 북부앞바다 제외)에서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분석하였다.
- 또한, 당분간 남해서부해상과 제주도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짙은 안개가 끼는 해역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유의사항) 7월 19일(수)까지 강한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 및 비닐하우스, 간판, 해수욕장과 같은 야외 시설물에 대한 점검 관리와 높은 물결로 인한 해상 안전 사고 및 해수욕객, 갯바위 낚시객, 해상어업 활동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3 폭염과 열대야 전망

- (폭염과 열대야) 지난 7월 10일 제주도(북부, 서부, 동부, 북부중산간)에 첫 폭염특보가 발표된 이후, 제주도에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강하게 불면서 한라산을 넘는 바람에 의해 기온이 더욱 오르고, 낮 동안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제주도 남부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높은 습도로 낮 동안 상승한 기온이 밤사이에도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지속되겠고, 현재(7월 17일 기준), 올해 열대야 일수는 제주 12일, 고산 6일, 성산 6일, 서귀포 7일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 19일(수)까지 제주도에 불안정한 대기로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으나, 비가 그친 후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무더위 열대야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고 밝혔다.
- (유의사항) 폭염영향예보(매일 11시 30분 발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바깥 활동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 (보건)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 가장 무더운 시간(12~17시) 야외 활동 자제
 - (산업) 야외작업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공간 준비
 - (농업) 농작업 시 수분 섭취, 장시간 농작업과 나홀로 작업 자제 및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병해충 발생 유의 및 방제 실시
 - (축산업) 축산농가에서는 송풍·분무장치 등 시설물 점검 및 축사 온도 조절 유의
 - (수산양식)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양식생물 고수온에 대비
 - (기타) 에어컨 실외기 화재 가능성 있으니 미리 점검

NEWSIS 지방 > 제주

빗물이 넘치는 제주시 연삼로

등록 2019.07.22 08:45:41



【제주=뉴스시스】강정만 기자= 22일 새벽 시간당 시간당 20~30mm의 호우가 내린 제주시 연삼로 M 호텔 사거리 서쪽 길을 오가는 차량들이 빗물이 넘치는 도로위를 달리고 있다. 2019.07.22

제주 북부-서부 호우경보...외도 시간당 50.5mm 폭우

※ 김정호 기자 | © 승인 2019.07.22 07:07



국지성 호우로 제주 북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오전 6시20분을 기해 제주북부와 서부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대체 발표했다.

현재 제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서류가 합류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돼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다.

뉴스 인쇄하기

jtbc

인쇄하기

취소

시간당 66mm '물바다 제주'...역대 7월 최고 기록 경신

[JTBC] 입력 2019-07-22 오후 4:46:37 수정

집중호우로 도로·주택·식당 등 곳곳 침수



[앵커]

오늘(22일) 아침 제주에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66mm였는데 역대 7월 강수로는 최고 기록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 시간당 66mm '기습 폭우'...침수 피해 잇따라

입력 2019.07.22 (19:15) | 수정 2019.07.23 (08:42)

뉴스 7

🔍 📄 📌

🔊 📺 📖

고화질 표준화질 자동재생 off 키보드 컨트롤 안내



제주 달진 기습 폭우 <이전기사> 홍콩 시위, '반중 vs 친중' 대립... '원조 귀환' 시위대 공격 태풍 넘겼더니 '뽕통 더위'... 모레 까지 열대야도 기승 > 다음기사 >

[앵커]

오늘 이른 아침에 제주엔 갑작스러운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